

# 목포 도심 맹꽂이가 돌아왔다

〈멸종위기 2급〉



도로에 조성된 인도의 경계석에 가로막힌 맹꽂이의 모습.

### 북향동 매립지 서식지 조성 효과 1만3000㎡ 습지·체험공간 갖춰 대구 생태담당자 방문 벤치마킹 도로 경계석·물마름 대책 필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목포 도심에 멸종 위기 2급 맹꽂이가 돌아왔다.

요즘 목포시 북향동 신안비치 아파트 인근에는 맹꽂이 울음소리가 한창이다. 봄날의 개구리 울음이 애잔하고 서정적이려면, 한여름 장마철 빗속에 메아리치는 맹꽂이 울음은 우렁차고 힘 있었다. 이 소리는 번식기를 맞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求愛)를 하는 소리다. 맹꽂이는 다리가 짧아 개구리처럼 뛰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때리는 아이처럼 엉금엉금 이동한다.

지난해 말 북향동 매립지에 조성된 맹꽂이 서식지가 지난 5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 생태계의 기적”으로 통하는 목포시 북향동 맹꽂이 서식지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 등을 짚어 봤다.

◇맹꽂이 서식지 어떻게 조성 됐나=목포시는 ‘2014년도 환경부 생태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계보전 협력금 6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신안 비치 아파트와 목포 해양경찰서 사이 매립지 1만3000여㎡에 양서류 서식지(산란·은신·동면지), 수질정화 습지, 야생화 조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과 넥스스 환경디자인연구소(주)에서 개발한 맹꽂이 최적 서식지 복원 기술(HSD)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도심지역 적용은 국내에서 목포가 처음이다.

당초 이 매립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토지로 인근 주민들의 무단 경작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쳤으나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맹꽂이를 주제로 한 대체 서식지 복원 개념의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생태허브 도시건설’의 첫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복원된 맹꽂이 서식지가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테크에서 맹꽂이를 관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 생태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북향 맹꽂이 서식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연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을 통해 도심에서도 맹꽂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게 됐다”며 “목포가 ‘생태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각광받는 생태체험 학습장=목포시는 맹꽂이 30여 마리를 서식지로 이주시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맹꽂이 대체 서식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목포시 환경보호과(과장 손상돈)는 맹꽂이 산란시기인 지난 5~7월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시지부와 함께 자연환경생태 해설사 4명을 활용해 목포 관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맹꽂이 탐사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한해살이반(30명)과 일일 체험반(각 30명) 두 종류로,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여명이 참가해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호과는 ▲맹꽂이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 ▲맹꽂이는 뭘 먹고 살까? ▲맹꽂이는 정말 맹꽂 맹꽂 울까? ▲사라져가는 맹꽂이 우리가 지

킨다 등 세부적인 커리큘럼까지 자체 개발해 이를 적용시킨 것이어서 뜻 깊은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대구시 등 타 지자체 생태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2일 북향동 주민센터에서 ‘멸종위기 양서류(맹꽂이) 복원기술 활용 설명회’가 열리는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환경보호과 이승한 실무관은 ‘북향 맹꽂이 대체서식지 복원 사례’ 발표를 통해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실태를 마련했다.

◇향후 개선점은=대체 서식지가 도심에 조성돼, 생육 환경이 열악한 복원지 주변의 맹꽂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식지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도 시설(일종의 생태통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로 주변에 설치된 경계석이 높아 주변의 맹꽂이들의 대체 서식지로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맹꽂이 산란철에 소형 습지의 물마름 현상으로 울창이 생육 환경이 파괴돼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깊이나 크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글·사진 고규석기자 yousou@

# 즐거이는 전지훈련...목포 경제 활력

### 스포츠 인프라 탄탄하고 교통 편리 7월 이후 24개 팀 1189명 찾아

동계 전지훈련지 메카로 떠오른 목포시에 최근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국내외 전지훈련 팀의 발길이 잇따라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목포 국제축구센터를 비롯해 유달경기장, 실내수영장 등에는 선수들이 기암 향상과 강력한 전술훈련을 펼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시는 “올 7월부터 5일 현재까지 축구·하키·육상·수영 4개 종목에 24개 팀 1189명이 목포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과에 따르면 축구 종목은 19세 여자 대표팀, 17세 남자대표팀, 호주 FNSW U-12세 등 4개 팀 891명이 훈련을 실시했다.

또 하키는 중국 길림성 여자하키팀, 국가대표 후보팀, KT, 한국체대, 아산시청, 인제대 등 6개 팀 141명이, 육상에서는 이리공고, 익산지원중, 이리동중, 대구 체육중, 대구체육고 등 8개 팀 50명이 참가해 맹훈련을 펼쳤다.

수영에서도 국가대표 수구 상비군, 경영 청소년 대표, 경기체고, 전북체고, 경남체고, 충남체고 등 6개팀 107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 동안 목포에

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는 선수 1명당 1일 7만 9447원(전남도 하계 전지훈련 경제효과 산출 기준)을 적용 시 하루에만 9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앞서 2015년 동계 전지훈련(12월~2월)에도 12개 종목 221개 팀 6만6456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목포시가 겨울 뿐 만 아니라 여름철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데는 최신 시설, 국제 규격에 맞는 질 높은 천연·인조 잔디구장 완비, 서해안고속도로·무안공항KTX 등 편리한 교통 환경 등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팀 감독들은 “무엇보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전지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평가에는 목포 국제축구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 축구센터는 축구장 7면(천연 3, 인조 4면)과 하키키팀 2면, 하프 돔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123실에 5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스포츠 마케팅은 민선 6기 공약 실현을 1위 사업”이라며 “축구센터의 경우 실·내외 훈련을 함께 할 수 있고 목포시가 축구·육상·하키 팀을 육성해 연습 상대가 있어 타 지역보다 조건이 유리한 게 인기의 비결 같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삼학도 DJ기념관 앞 도로 상습 침수 문제 해결될 듯

### 내년 지반 높이기 공사 돌입

목포시 삼학도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앞 도로 침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비가 오지 않아도 목포항 수위가 5m까지 높아지면 바닷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구역이다. DJ 기념관앞 도로는 해발 4m로 바다 쪽 보다 1m가 낮기 때문에 빗어진 현상이다.

목포시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침수 방지 사업과 함께 삼학도 지반을 높이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민 권익위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목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석탄부두가 이전하는 오는 2017년 삼학도 공원과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반을 1m 높이는 방법으로 상습 침수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학도에는 마나라 향과 DJ 기념관, 어린이 바다과학관 등 관광시설이 밀집돼 있어 목포시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복지재단, 복지시설 위문품

목포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은 최근 사회복지 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목포복지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강한 놀이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1개소와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정들이 공동 생활하는 시설인 그룹홈 7개소에 쌀과 라면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혁영 이사장은 “아동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지역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기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한편 목포복지재단은 올해를 ‘나눔 문화의 원년’으로 정착하고자 연중 후원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개인·단체·기업은 목포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mokpo.go.kr)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The 19th Mu-an Lotus Festival

연꽃향기 찾아 떠나는 무안여행

# 제19회 무안 연꽃 축제

- 백련의 향기 백련의 사랑 -

2015. 8.13(목) ~ 8.16(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무안군 061)450-5472, 5473